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운영

지원금 기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려… 식수 인원 올해 300만명으로 확대
대학 학생식당서 개막 행사… 양오봉 총장·보직자·학생들 아침식사 하며 소통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생활협동조합 후생관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만나볼 수 있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학생식당인 후생관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과 조동후 학생처장, 유창호 학생지원부처장,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지원금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리고, 식수 인원도 지난해 2만4,000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5,000원이던 한 끼 식사 비용을 올해 6,000원으로 인상해 음식의 질적 수준도 크게 높였다. 이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전북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북대학교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생활협동조합 후생관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한편, 이 사업에는 농림축산식품부 2,000원,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 1,000원, 전북대가 2,000원을 지원한다.

양오봉 총장은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북대 학생 복지의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지속적으로 식수 인원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공무직 7개 직종
총 312명 공개 채용

전북교육청, 사서 86명 등
17일부터 3일간 원서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공무직원 7개 직종에 312명을 공개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직종별로 사서 86명, 교무실무사 6명, 조리실무사 185명, 특수교육지도사 31명, 교육복지사 2명, Wee센터 사회복지사 1명, 과학문화해설사 1명 등이다.

사서 86명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량 확대를 위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7월 1일부터 학교도서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17~19일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본청 창초나래 1회의실에서 제공하는 원서제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서 배치 확대와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이 즐겨 찾는 배움과 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4~5일 이틀간 학생회관 일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적응력 강화 행사를 개최했다.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도모

전주대, 신입생 적응력 강화 행사 성료

자기주도적 잠재력 끌어내는 것에 초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4~5일 이틀간 학생회관 일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적응력 강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신입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한 대학생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포괄활동 및 다양한 진로·전공·학과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포괄활동 부스(중앙동 아리) △진로·전공 탐색 부스 △대학생활 부스 △학과탐색 부스로 구분해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학과탐색 부스는 전주대가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 신설

과 인문콘텐츠대학 및 경영대학 내 학과 구분없는 통합 선발한 만큼, 신입생들의 자유로운 전공 탐색을 활성화하고 다양하면서도 융합적 학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올해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신숙경 학생취업처장은 “이번 행사는 신입생 스스로 다양한 부스를 방문해 자기주도적인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2025년 학부모 리더 교육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학부모 리더 교육과정에는 시군 학부모 회협의회장 7명이 참여했다.

전북지역 학부모 교육 활성화 ‘학부모’가 힘쓴다

전북교육연구원에서 ‘2025년 학부모 리더 교육과정’ 수료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교육연구원에서 2025년 학부모 리더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리더 교육과정에는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장 7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24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학부모회 운영, 소통 및 갈등 해결,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공모사업 이해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학습하는 한편, 교사자문단과의 만남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에 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연구원 민완성 원장이 직접 수료증을 수여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한 학부모회협의

회장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며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문화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부모 리더들이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도전리더십 캠프 성료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이 지난 달 26~28일 2박 3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도전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2025학년도 인문콘텐츠대학 통합모집으로 선발된 130명의 신입생 중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체 역량 강화 △자기 주도 역량 함양 △학술 역량 향상 및 소속감 고취를 목표로 진행됐다.

먼저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신입생들은 팀 프로젝트와 팀 게임에 참여했다. 특히 팀 프로젝트에서는 재학생 멘토와 협력해 인문학 관련 주제를 탐구하고, 성과 공유회를 통해 팀별 결과를 발표했다.

자기 주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STRONG 검사, 비전 타임캡슐 만들기 및 봉인식이 포함됐다. STRONG 검사는 신입생들이 흥미 목록(Interest Inventory) 문항에 답하면서 자신의 직업적 흥미를 파악하고, 적합한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이 지난달 26~28일 2박 3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도전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한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비전 타임캡슐 만들기는 인문콘텐츠대학만의 특별한 활동으로, 4년 후의 자신을 그려보는 자기 설계 시간이다. 이 활동을 통해 신입생들은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구체화하고, 대학 생활 동안 이루고 싶은 꿈을 정리할 수 시간을 가졌다.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다

양한 특강이 준비됐다. ‘허구와 상상력의 힘, 삼국지’(중국어중국학과 안정훈 교수), ‘인공지능 어디까지 가니’(인공지능학과 민정익 교수), ‘문서 데이터 속 콘다, 콘텐츠의 바다’(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와 같이 흥미로운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인문콘텐츠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단과대학 내 학과 구분 없는 통합 선발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민들에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 기회

전북대, 캠퍼스 텃밭 분양

1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총 114개 구획 중 98곳 추첨

21곳은 장애인 등에 분양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역민들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캠퍼스 텃밭을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분양하는 캠퍼스 텃밭은 농생대 부속농장 실습장 부지 1,456㎡ 면적에서 총 114개 구획과 텃밭상자 5개 구획이다. 이 중 98개 구획은 전주 및 완주 주민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지역민에게 추첨을 통해 분양되고, 나머지 21개 구획은 장애인과 전년도 공모전 수상자 등에게 특별 분양된다. 텃밭 면적은 한 구획 당 약 13㎡이다.

오는 11일까지 전북대 홈페이지(www.jnu.ac.kr) 교내공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agriculture123@jnu.ac.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선정 결과는 14일 전북대 홈페이지에 안내된다.

주병길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캠퍼스 텃밭은 지역민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살고 싶은 지역·대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감과 협력이 강화되고 나눔과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새학기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전북교육청, 14일까지 집중관리기간 운영… 5대 영역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학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를 신학기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신입생 예방접종 점검, 방역수칙 교육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방역관리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초·중 입학생 필수 예방접종 홍보 및 이력 확인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방역수칙 준수 가정통신문 발송 △기숙사 입소학생 결핵검진 실시 및 확인 △감염

병 예방관리 연간 계획 수립 △매일 감염병 현황 파악 및 보고 철저 등이

다. 각급 학교에 방역물품 확보 방안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초·중학교 신입생은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및 학생 건강관리 방안을 안내해 가정에서도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신학기에는 학생들의 집단 활동이 많아지면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초등 1학년 신입생들에 교통안전사고 예방용품 배부

전북교육청, 반사경 제작… 책가방에 부착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통안전 예방용품인 반사경(엘로카트)을 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통학로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행 중 어린이 시인성 확보로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교통안전 반사경은 빛을 반사해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결고리 형태로 제작해 등·하교시 책가방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별 캐릭터로 제작해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느끼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학생



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